

IIRI Online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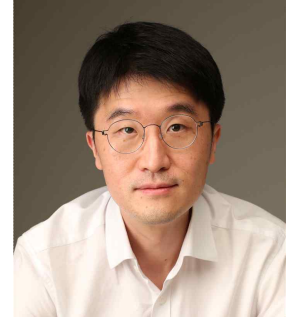
미중 패권경쟁의 한계

김 동 중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2024. 10. 29

미중 패권경쟁의 한계



김 동 중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경쟁은 21세기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 강대국은 이미 서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이념적, 사회적, 감정적 갈등과 경쟁에 깊게 들어서 있고 그 추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충돌은 국제관계의 대부분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미중경쟁의 과정과 결과를 ‘패권경쟁’으로 보는 시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패권은 국제관계의 주요 영역을 한 국가가 특정한 규칙 및 규범에 입각하여 수직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직면한 물질적 조건은 국제체제의 패권국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두 국가의 공존을 강제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승리’가 어려운 군사경쟁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볼 때 경쟁하는 강대국들은 군사적 갈등을 넘어 흔히 패권전쟁이라고 부르는 건곤일척의 군사적 승부를 겨룬다. 이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대의 힘을 결정적으로 감소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상대국가에 강제하여 국제체제의 주도국가가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지리적 특징과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한 수준의 핵능력 보유는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의 범위와 영향에 큰 제한을 가한다. 해양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강대국 사이에 양차 세계대전과 같은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이 군사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외부에 투사하고자 할 때 미중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꼽히는데 여기에 서 미국이 달성할 수 있는 성과는 중국이 군사적 목적달성을 일시적으로 부인(deny)하는 것에 국한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 결과로 자신의 해·공군력을 상실하더라도 핵심 이해 지역인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군사력 재구축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핵보복 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중국 지도부를 타도할 시도를 하거나 본토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공격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역량과 의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미중 간 군사적 충돌에서는 일시적인 전략적 목표 달성을 넘어 전통적인 전쟁의 목적, 즉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상대에게 확고하게 강제하는 승리는 달성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은 심각한 안보 갈등을 이어갈 것이나 핵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승리가 아닌 억제를 목표로 한 군사적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안보 경쟁의 특징은 서로를 제압할 수 없는 두 강대국이 이른바 ‘부정적인 공존’을 달성한다는 것에 있다.

거대시장으로서 미국과 중국

오늘날 미중 경쟁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폭넓은 경제적 경쟁이 꼽힌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금융, 생산활동, 기술개발 등 경제 관계의 제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우위와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을 두고 경쟁한다는 지적이다. 군사력과 경제력 간 밀접한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도력이 국제질서 및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중 간 경제경쟁은 매우 심각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을 압도하는 결과는 나타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거대한 시장이고 그러한 물질적 조건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대규모의 인구 및 생산 활동, 자원, 거대한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서는 강대국이 되기 위한 물질적 역량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시장을 한 강대국의 정치적 의지로 축소시키거나 복속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정한 영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거대시장으로서 큰 구 매력과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더라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대시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두 국가가 원치 않더라도 미중 간 상호의존적 경제 상황은 이어질 것이다.

국제질서 주도의 한계

국제체제 최강국들 간 경쟁은 국제질서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충돌을 수반한다.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되고 냉전 이후 강화된 국가 간 관계를 관리(govern)하는 데 있어 다자주의, 열린 경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제도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이 질서의 구체적인 부분들 혹은 전반에 걸쳐 도전장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 질서’ 혹은 ‘자유주의 질서’와 아직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중국 주도의 질서 모두 현재로서는 국제체제의 다수 국가를 포용하지는 못하는 ‘제한된 질서’ 혹은 ‘소수 질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권위주의 대 미국주도의 민주주의 국가집단 간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 균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심화 이후 양측을 지지하는 국가 간 균열과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서유럽,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이 균열선에서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들의 수는 제한적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명백하게 지지하는 국가들의 집단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이른바 ‘세계적 남부(Global South)’로 통칭되는 제3의 행위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질서는 제한된 질서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국가들은 미국 중심 혹은 중국 중심의 질서 모두에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을 포함하는 이 국가집단은 냉전기에는 ‘제3세계’라 불리며 저개발지역으로 남아있어 강대국 간 세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 남부 국가들은 경제적 성장과 미래 발전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국제질서의 구축에 있어서도 이들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질서는 다수 국가의 참여를 통한 정당성 획득이 필수적인데, 이 국가집단들이 국제체제 전체에 있어서 수적인 다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이 자신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조직하고 세력화하더라도, 이 국가들이 각각 주창하는 질서는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는 패권에 가까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에의 함의

향후 수십 년 간 미중 경쟁은 이어질 것이고 이는 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부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강대국 간 경쟁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국제관계의 제반 영역들이 특정한 방식 및 위계 하에 재조직 될 것으로 보는 패권 경쟁의 시각에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국제체제의 주요 이슈 영역들은 다극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간 경쟁의 핵심 역시 양국이 패권보다는 세력 균형을 형성하고 다극체제에서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각각 국제질서를 자신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맞게 재조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각자 하고자 하는 것(what ought to be)과 할 수 있는 것(what is)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흔히 국제정치학에

서 이상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의 차이다. 한국의 대외전략 역시 강대국 경쟁의 물질적 조건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김동중 교수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하버드 벨퍼센터 박사전 연구원과 싱가포르 국립대 조교수로 근무한 바 있다.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강대국정치, 동맹관계 등이다. 단행본 *Compound Containment: A Reigning Power's Military-Economic Countermeasures against a Challenging Powe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2)은 2022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Email: dj-kim@korea.ac.kr)

